

# 건축문화 **사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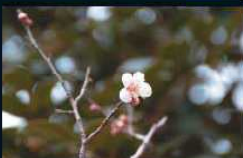
Vol.004 10. March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News 2010.03

00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p><b>시론</b>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자!_이성엽                  광주의 정체성과 건축_윤현석</p> <p><b>건축과 조경</b>                  조경과 경관건축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_조동범</p> <p><b>건축과 도시</b>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_이명규</p> <p><b>인터뷰/ 건축도시시책</b>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디자인정책과_김용현</p> <p><b>회원탐방</b>                  정명철 건축사</p> <p><b>설계경기</b>                  정음박물관, 광주시립박물관</p> <p><b>작품소개</b>                  북구청소년수련관 별관, 라마다프라자 호텔,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p> <p><b>로저 베일리 강연회</b> 제로에너지-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p>	
			



##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자!



**이성업** 건축사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어느 시대이든 과도기 아닌 때가 없었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요즈음처럼 힘든 시절도 드물었던 것 같다. IMF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또 다시 경멸하게 된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300만이 넘는 실업자와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듣기에도 거북한 '민생 건축사', '휴대폰 건축사'라는 단어가 회자되는 것을 보면 우리 건축사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주변 환경의 변화가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요즈음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일본의 잉여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는 10센티미터 정도 밖에 자라지 않지만 자연 속에서는 1미터까지도 자란다고 한다. 놀라운 적응력이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 해마다 겪게 되는 나일 강의 범람 때문에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서 설명했다. 즉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바로 인간 사회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한 것이다. 문명의 태동과 발전은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과 당연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이 오히려 의지와 저항력을 키우고 직관과 분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 제도나 법률 등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진화되고 있다. 요즈음과 같이 건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 큰 위기감과 상실감을 갖기 쉽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과거만을 회상하며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 것인가 다시 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여 퇴보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의 흥망성쇠는 외부 요인보다 내부 분야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응하는 조직이 계속 살아남아 발전할 수 있다.

지난 대한건축사협회 제44회 정기총회를 전후해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아쉬움이 많다. 금년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 45주년을 맞게 된다. 그 동안 순탄치만 않은 역사와 함께 시류의 변화에 따라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며 성장해온 대한건축사협회가 희망찬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앞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구성원이 공감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마련 될 때 우리 구성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협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게 되고,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 광주의 정체성과 건축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  
도시계획학 석사

요즘 대세는 '개성'인 듯하다. 외모, 즉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 지역, 국가에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지 여부가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잘 나고 멋있다고 해도 다른 무엇인가와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면, 얼마 안 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 명확히 발산되지 못하면, 그 도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거리와 공원, 건축물, 기타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적에 불과할 것이다. 흔히들 도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역사와 문화'다. 이들 두 명제는 시간의 과정과 결과물로도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은 도시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곳곳에서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최근까지도 이들 명제는 경제성이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쉽게 사라져갔었다.

학동 8거리, 백화마을, 수피아 여중·여고 건물, 광주의 근현대사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 역사적인 산물들은 이제 없으며, 그 자리는 고층 아파트와 신식 건축물로 바뀌어 있다. 이들은 최근 2~3년 새 사라진 대표적인 광주의 유산으로, 미처 거론되지 못한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옛 것에 대한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월거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만 충실해 막무가내로 헐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실 어떤 건축물이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지역 내 공감대도 없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공공재산인 이들 역사적·문화적인 건축물들은 토지소유주나 개발업자에 의해 '완벽한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고, 또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들도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닐 수 없다.

지난 2009년 초 광주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내 전체 건축물 수는 13만7천268동으로, 이중 주거용이 10만790동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몇몇 유명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건물 중에서도 분명 광주가 지나는 발자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들 주거용 건물들,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들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있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들 건축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것을 통해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이나 정비 방안을 찾는 것은, 따라서 광주의 미래도시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과거가 없는 현재, 또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을 보여주며, 과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지금 광주는 '아파트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주거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이 외면을 받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만이 내 주거 방식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단독주택에 대한 광주만의 디자인이 없다는 것이다. 고작 과거 1960·70년대 BRD 차관을 빌어 지은 2층 양옥집이나, 지붕에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기와를 얹은 허름한 1층 한옥(전통한옥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등이 광주의 단독주택 스타일인 것이다.

따라서 각 면적 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단독주택 모델을 만들고 시범단지를 만들어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광주만의 정체성을 빛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우리가 선진도시라고 일컫는 상당수 도시들은 짙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 켜켜이 쌓여온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도시에 가야 우리는 비로소 편안함과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광주가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주)에이엠지그룹은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과 시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건축설계 및 공리

대형건 조도프로젝트 기획, 설계 공정을 비롯하여 High-Tech 설계, 선분할설계, 최적화된 디자인, 그리고 신야의 땀을 구슬같이 건축주에게 보내 집안과외 디자인과 기술의 세공력도 있습니다.

#### ■ 실내디자인

수업전공전에 투입되는 감각적이고 심플한 디자인 / 실용적이거나 고객층의 시선.

#### ■ 시설물유지관리 및 내진보강설계 및 시공

건축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진 건축설계 및 도난·내진보강역사적인 시설물 연구개발회피, 원형준 세공의 석공 시공기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건축물의 고수질을 실현하였습니다.



순천공업단지 (유지보강공사시공)

#### ■ SK케미칼 보강자재 설계 및 시공

기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세척시 건축물을 손상 하지 않고 고경도 연소성인 공법으로 고품격하여 시공, 보강이 단순함속 공법인 SK Strip System & SK Be Bar System로 부의 일괄 및 선분할, 기동, 슬리브, 용벽, 조적벽 등에 역설이 적용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

※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건축, 토목구조물, 터널, 사일로 등)에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신도 현도 보강 보라 사제)



— 콘크리트 보강공기 —  
— 보강공기 시공 —  
— 보강공기 시공 —

(단체 및 프랜차이즈 영업)



— 건물관리 —  
— 건축설계 —  
— 시설유지관리 —  
— 보강공사 —

**(주)에이엠지그룹**  
A company of AEM Group

**SK 케미칼**

광주광역시 죽곡동 694-10  
TEL 062-229-1883 FAX 062-222-0054  
e-mail) amz@06095eafor.com

— 본점 —  
— 서울 — (11227) 111  
— 대구 — (70004) 011-011  
— 부산 — (47001) 111-111  
— 광주 — (60001) 111-111  
— 인천 — (40001) 111-111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 상정된 4개의 부의안건 만장일치로 승인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3월 5일(금)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및 대의원 개선', '건축문화사랑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등 총 4개 분야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는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건축사현장 낭독, 개회사,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격려사, 광주광역시장 축사, 감사패 수여, 신입회원 소개, 감사보고 및 부의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고, 광주건축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위대한 광주건축사회, 창조적인 광주건축사회, 미래 환경의 변화와 문화수도 광주의 변화를 주도하는 건축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희망의 결단을 이뤄내는 총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사 반세기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된다는 것

을 모두가 각인하고, 그 동안의 틀을 벗어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대처해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세계 건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로 건축사들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최영집 회장은 별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2009년도 업무성과와 2010년도 업무계획을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역의 건축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유금배 건축주사를 비롯하여 서구청 건축과 이정승, 남구청 건축과 신상균 및 삼성전자주식회사 김용성 서부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건축사신협 선종덕 전무와 협회 김양옥 과장에게는 근속표창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신입회원 윤대두, 김형균, 이현조, 유희두, 백철우 건축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4개의 안건 중 '2009년도 수지결산(안)'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및 '건축문화사랑 수지예산(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감사에 임경희, 이사에 강석훈, 강필서, 강현규, 박흥근, 차은영 건축사가 선출되었으며, 대의원에 강현규, 강필서, 문충성, 심상봉, 안태경, 이광천, 이창률, 최경양 건축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28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4차 정기총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광속국 전달기자 (ksk830710@hanmail.net)

### 대한건축사협회 제44회 정기총회

- 건축 단계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대의원 309명중 찬성 189, 반대 118로 부결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우수단체표창 수상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25일 (목)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건축 단계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 공제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 등 총 10개 분야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상정된 안건에서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은, 지난 2009년 11월 3일 제1회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 319명중 찬성 186, 반대 133으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된 후, 재상정되어 그 어느 안건보다 관심이 집중됐다.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건축사현장 낭독, 개회사, 국토해양부장관 치사, 축사, 공로패 및 표창장수여, 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일본건축사협회 후지모토 마사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와 같은 건축 관련 각 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대처하고, 상호 진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보고 후, 진행된 10개 분야의 부의안건 중, 제2호

의안인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에서 지역별로 대의원이 이견을 보이며 무기명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309명중 찬성 189, 반대 118, 무효 2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 됐다. 이는 지난 1월 중 본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단체통합 설문조사와 상반된 결과(참여회원 3300명, 찬성 2524명, 반대 764명, 전체회원 3/4 통합찬성)여서 향후 통합에 대한 본협회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부의안건 중, 제6호의안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은 대다수 대의원의 요청으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부의안건은 이의 없음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광주광역시 건축사회는 공로패 및 단체표창수여식에서 최우수단체표창을 수상한 충청남도건축사회에 이어 대구건축사회와 함께 우수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광속국 전달기자 (ksk830710@hanmail.net)

### 법령소식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10여개의 법령이 일부개정 등의 이유로 새롭게 공포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법령은 표와 같다.

법령명	제개정구분	공포번호	시행일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22070호	2010.3.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226호	2010.3.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225호	2010.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24호	2010.2.2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2052호	201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22호	2010.2.1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20호	2010.2.1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19호	2010.2.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21호	2010.2.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2027호	2010.2.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2021호	2010.2.7
항만공사업법	일부개정	제10041호	2010.5.5

우리 건축인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최근 공포법률을 참조하면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상 일반 초·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안학교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규모나 입지의 내안학교가 활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시행령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영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도 도입(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영 제34조제1항)

: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차량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의 개정 신청권을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맞는 안전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은 건축사 기자 (archsye@naver.com)



# 조경과 경관건축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

조동범 교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건축계의 번역서를 읽다보면 지금도 '풍경건축'이라는 출처불명의 단어가 가끔 등장한다. 아마 조경이라는 분야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번역했다거나 아니면 번역소프트웨어가 대신 해준 것을 미처 바로잡지 못했겠지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원문은 Landscape Architecture - 조경이었을 것이다). 조경을 전공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귀 위쪽의 머리털이 잠시 서면서 땀이 배는 순간이다. 자신의 이름이 엉뚱하게 불리면 의도적으로라도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을 자기분야의 정체성으로부터 기대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 보상심리는 역으로, 조경이라는 단어가 개발제한구역에서나 볼 수 있는 어수선한 비닐하우스 꽃집이나 소규모 잔디, 수목시장의 간판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조경학 전공 학생들의 발표자료에서마저도 - 조경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지 영어실력이 부족해 스스로 번역을 하지 못한 때문인지 -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동안 조경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에 대해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화풀이 겸 혼내기도 한다. 학생 본인은 그 정도는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명일과 할 수도 있었지만...



제임스 와인즈의 지하 주차장 상부 퍼싱스퀘어 제안 - 공국의 결과 표피는 로스엔젤스의 경관을 컨테그르로서 끌어들이고 있으며, 모듈화된 그리드에는 특징적 식생과 지형, 자동차 문화 등이 식물적 클라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도시의 경관에는 밀도의 문제가 상존한다. Highrise Homes/SITE

## 사각적 의미로서의 경관

지난 호에 언급되었던 대로 센트럴파크의 성공과 더불어 공공조경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하버드대학에서 학문으로 성립하기 시작한 것은 20C초 미국에서의 일이다. 그 때, 조경 분야 이름은 Landscape Architecture였는데, 최초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찰스 더 거슬러 올라간 1839년, 클라우디우스 루든(John Claudius Loudon)이라는 스코틀랜드 조경가의 "Landscape Garde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Late Humphry Repton"라는 책에서이다.



일종의 디자인 시뮬레이션처럼 그림을 겹쳐보게 한 험프리렙튼의 스케치

험프리 렙튼은 18C말~19C초 활약한 영국의 풍경식 정원학파로서 정원디자인을 경관디자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인물이다. 렙튼은 평소 레드북(표지가 붉은 색인 디자인노트)을 가지고 다니며, 클라이언트에게 공간 개조전후의 변화를 예측하여 겹쳐 놓을 수 있는 스케치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일종의 세일즈 기법으로서 <Before & After>를 명쾌하게 대비시킴으로서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이었다. 영국의 풍경식 정원 양식은, 개방적이고 완만한 목초지가 펼쳐지며 드문 드문 숲이 거리감과 공간을 구분해주고 저지대에는 호수가 있어 자연 자체로 보이게 하는, 그야말로 '그림과도 같은(pictureque)' 목가적 풍경을 정원의 전형으로 하였다. 규모가 큰 정원 부지에서는 공간 디자인으로서보다는, 특정 시점으로부터 전개되는 시각적 구도로서의 <경관(landscape)>을 <만드는 일(architecture)>이 중요한 관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landscape는, 17세기 이후 유럽에서의 풍경화의 발달이나 낭만주의적 자연관의 등장 배경과 함께, 어디까지나 '그림이 되'는 시각적 구도의 의미가 머물고 있다. 맥하그(Ian McHarg)의 생태적 조경계획 방법론이 제기되고 경관 생태학이 등장하는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적어도 조경이라는 용어에 붙은 landscape는 '그림같이 그럴듯한'이라는 수식어의 의미가 강하였고 그것은 조경에 씌워진 굴레와도 같았다.

## 경관건축

그러던 것이, 경관건축이나 지형건축이 등장한 후에는 landscape architecture가 무엇을 의도한 단어인지,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등장했다. 경관건축 또한 동일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경관건축은 20C 후반의 해체주의 건축의 등장이나 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으로의 변화에 그 맥락이 존재한다. 건축 자체를 단편화하여 해체함으로써 스스로의 경계를 없애려한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나 그린 아키텍처를 표방하며 풍토와 문화, 사회적 의미와 경험을 경관구성 요소로서 표현한 SITE의 제임스 와인즈(James Wines), 건축의 외피를 없앴으로써 도시 속에서 인간과 대지, 대기와의 관계를 새롭게 드러내 보이게 한 에밀리오 엠바스(Emilio Ambasz)등의 건축은 근대 건축이 갖는 공간 균질성을 부정하고, 형태를 소거하면서 벽, 지붕, 대지, 물, 빛 등 건축과 환경의 경계인 경관요소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영역감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기존의 근대건축의 소재에서 벗어나 식물이나 대지의 일부로 건축의 외피를 덮어 경관과의 경계나 윤곽까지도 없애고자 한 시도 등에서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체험의 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디자인 시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경과 건축의 통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경관건축의 등장을 통해 이야기되어야 할 문제는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 혹은 '경관건축' 어느 쪽으로 번역하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다. 적어도 경관에 대한 두 가지 계보 - 미학적 혹은 과학적 그 둘 중 하나로 보려는 - 로부터 탈피하여 통합적 경관인식으로서의 건축의 위상 변화에 관련된 것이다. 경관건축에서 보이는 형태와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나 건축외피 소재의 다양화가 시각적 새로움으로써 어필되는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변화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 지금까지 시각에 머물렀던 경관의 개념을 생태나 문화, 기술, 사회, 경제 등 다차원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건축에 대해 경관으로서의 의미를 되묻는 것이며 아울러 경관이 가지는 공공성으로서의 의미를 건축이 자임하는 것이다.

## Before & After를 넘어...

피터 리드는 동시대 조경설계 작품들과 그 특징을 소개하는 'Groundswell ; 동시대 경관의 구축(2005년)'의 서문을 "Before와 After를 넘어"라는 글로 시작하고 있다. 동시대 조경작품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험프리 렙튼의 레드북에서처럼 개조 이전과 개조 이후의 경관을 시각적인 구도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차원을 넘어, 문화, 역사, 생태, 사회를 반영하며 도시재생, 도시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의 조경이나 건축에서는 '그림과 같은 그럴듯한' 구도의 시각적인 의미나 정태적인 공간형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대부분이며, 성형이나 화장발로 Before & After를 보여주는 데 건축과 조경의 역할이 여전히 추구되고 있기도 하다. 경관건축에서의 그 landscape가 시각적인 유행으로서의 수식어로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과거 조경에 씌워졌던 굴레를 건축 또한 반복하는 셈일 것이다.

lobcho@chonnam.ac.kr



스페인 바르셀로나 식물원(건축 C. Ferrator, 조경 B. Figueras). 식물원 정원의 조망과 함께 바르셀로나의 도시스카이라인이 조망이 가능한 지형경관은 숨겨진 건축과 TIN 자료와도 같은 외부동선에 의해 오히려 경관적 유연성을 발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의 Flat City 랜드스케이프 개념 / Daniel Balmori      가락시장 현대회사원 현상공모단 조경설계:디자인, 건축: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도시(City)란?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도시의 시대란 말은 도시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란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처해진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도시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과 같이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 것이다.



15세기말 무명작가의 중부 이탈리아 이상도시의 그림.

## 도시는 인간문명(civilization) 그 자체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서양적 사고방식이었지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는 아니었다. 서양에서는 도시를 인간문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도시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가며 운영해갈 것인가가 통치자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그래서 도시에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 자로 잦 듯 한 건축물들이 만들어 지고 관리되어 왔으며, 이상도시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보고 심지어 실현되어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에게도 도시에 대한 인식이 주어진 것(given)에서 적극적으로 가꾸고 만들어 갈 수 있다(making)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 비판적 사고와 도전적이고 창조적 의식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단편적이고 명령적이었고, 일종에 폐쇄된 공간 속에서 기능적으로 처리되어 왔다. 도시를 구성하고 만들어 가는 방식이 총체적(societal)이고 문화적이며 예술적이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류(mainstream)가 그렇다는 것이다. 도시를 만들어 가는 제도적 틀이 그러하고, 경제적 열악한 상황이 그러하며, 문화적 의식이 도발적 내지 창조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불행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 온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업과 행위들에 대해 무비판적이었고, 새롭게 해석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나 시도들이 부족하였다.



영화 'Metropolis'의 포스터, 1926년에 상연되었다. 암울한 미래 대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광주라는 도시의 토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할 시기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특징짓는 지금,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environs)에 대해 주위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때이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시는 그 여건이 매우 좋다고 하겠다. 5.18로 상징되는 민주화 과정에서 잉태되고 싹튼 민주 시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나고 성장한 나눔과 평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시의 도시개발모습. 교외에 단독주택의 무한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등의 시민문화의식이 그러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광주라는 토양에서 잉태되고 성장한 문화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고 구분되어 지며 독특하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느끼고 맛 볼 수 없는 다양하고 독특한 광주라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 새로운 도시만들기로 가는 길

이제 지금까지 도시를 만들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문화에 솔직한 방향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명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기비판과 기존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흔히 지방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의 토후세력과 관습에 갇혀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거나 발전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많은 것이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다. 그러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틀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출발을 준비할 때이다.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건축분야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길 기대해 본다. 본 글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총 10회에 걸쳐 도시와 건축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kwimg@hanmail.net



일본 마나주루마을(真鶴町)의 주민참여의 도시만들기의 운동인 '미의 조례'의 연구책자. 마나주루마을에서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미의 조례에 따라 짓도록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 밴쿠버시(Vancouver)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의 일환으로 주요건물이거나 공간개발에 있어 주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을 거치고 있다.



Interview

#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소프트웨어팀원 김연아 경기일(2010.02.24)에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디자인정책과 김용현 과장을 탐방하여 전라북도의 디자인정책과 전문가의 역할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공공디자인은 문화로 대변되는만큼 건축문화 사랑에 포용과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전라북도 디자인정책비전 녹색공공디자인에 건축사의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였다.

김용현 과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디자인정책과

지역의 정체성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요즘 주요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디자인' 이란 단어로 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그동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럴 필요와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도시공간에 대한 미적관심이 증대되어 많은 일들이 추진 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양적성장으로 치중하던 시대를 지나 삶의 질을 우선의 가치로 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근거 일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트렌드는 가히 역사적이라고 말할 만하고, 분명 지역경쟁력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은 무엇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디자인정책의 비전은 '녹색공공디자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도사업과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인증제,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경관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다각적인 협력디자인, 도시적맥락 및 주변과의 관계등을 고려한 다원적 관점의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그 도시만의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이를 마케팅하는 전략이 마련되어 시행될때 지역간 차이가 없는 우리 도시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중 건축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사는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도시공간을 만드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분야가 세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간과 디자인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은 타 직종에 비해 뛰어나다고 봅니다. 다각적인 협력에서 각 분야의 능력과 각각을 최대한 수용해야 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리드할 역할은 건축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직업적활동이 도시민의



전라북도 건축도시디자인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삶의 질을 쾌적하게 하고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공공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정책과에서 경관관리와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첫째, 공공디자인과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녹색공공디자인이란 비전으로 전라북도 디자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경관조례제정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초청세미나 2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심포지엄 1회 등 여러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공모사업으로 '의산 성당포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1억원을 확보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공공디자인이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입증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지역선정 등 디자인과 주택정책에 있어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공공디자인 인증제,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총회와 연계하여 건축문화행사개최와 경관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현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건축행정과 시설공사 그리고 디자인 등 많은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전국최초의 '서민주거안정사업'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공무원교육원 교관시설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랑나눔 위안잔치'를 생각하면 가슴에 뭉클합니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시 및 시상

## '천년의 비상' 공공디자인

시간화, 상징화, 내면화, 표면화, 현실화, 참여화

- 역사 → 미래(새로운 천년의 역사)
- 전통문화 → 참여, 관광자원화, 역동적 문화형성의 기반
- 생태자연 → 보존 및 보전 가치화
- 인간중심 → 천년비상의 원동력, 감성도시향



전라북도다움을 내포한 도시이미지 창조  
새로운 천년의 역사와 가치 발현

앞으로, 건축인으로서 전라북도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이 한 단계 더 레벨업되어 품격있는 전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디자인정책과

### 주요업무

1.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총괄 추진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경관계획, 경관사업
  - 공공디자인 인증제
  - 옥외광고물관리
2. 건축문화 향상
  -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건축문화상 추진
3. 주거복지정책
  - 임대주택공급, 관리
  -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4. 지적행정
  - 토지거래시장이안정화
  - 새주소사업
  - 지적행정서비스

인터뷰: 이성엽 전라북도 건축사협회장  
정 리: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주)승 건축사사무소**  
SEUNG ARCHITECTS CO.,LTD.





- 설 계 - 합리적, 경제적 맞춤 설계
- 감 리 - 믿음과 신리의 책임 감리
- 기 획 -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인 기획
- 컨 설 팅 -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컨설팅

**대표이사 문 감 옥**  
전화: 062) 526-8660  
팩스: 062) 526-8663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14-3번지 2층



#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정명철 건축사와의 만남



21세기 들어 지구환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재해 소식들은 시간이 지남수록 상상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2009년 쓰촨성 대지진, 2010년 1월의 아이티 대 참사, 바로 얼마전의 칠레 대지진과 쓰나미 등등, 불과 10년 전만해도 재난은 영화에서만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재난영화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지구의 환경 악화를 저역,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건축사들도 해야 한다는 당찬 의지로 정부의 그런 정책과 내진에 관해 미리 준비하고 활동하는 (주)에이엠지 그룹 건축사사무소의 정명철 건축사를 만나보았다.

정명철건축사(이하 정 건축사)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설계, 감리 등의 건축사사무소 본연의 업무 외에도 실내 건축, 내진, 빗물관리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사훈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로, 항상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정 건축사는 최근 들어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프로페셔널의 조건」(피터 드러커 교수 저) 이라는 책을 꼽으며 "21세기 비전을 위해 어떻게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꾸준한 전문지식 습득노력과 엄격한 자기관리'라고 답하는 책 내용을 소개하였다. 직원들에게도 세미나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내진보강 설계 및 시공분야 활동



현재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1~2층 저층건축물에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학교시설 등 내진등급 상향조정이 요구되는 교육시설 건축물(내진관련)등급을 기존 '1'에서 '특'으로 상향적용할 예정이라 한다.

정 건축사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 발주물의 그린스쿨이라는 분야에 기존 학교건축을 내진

보강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 내진댐퍼설치, 전단벽 보강, 브레이스 설치 등 설계와 시공에까지 적극 참여,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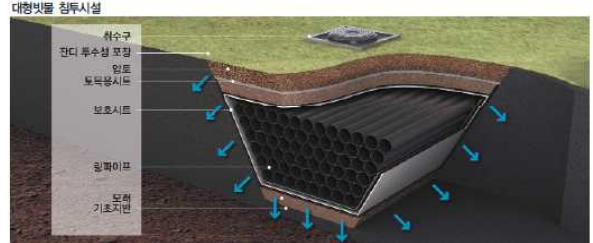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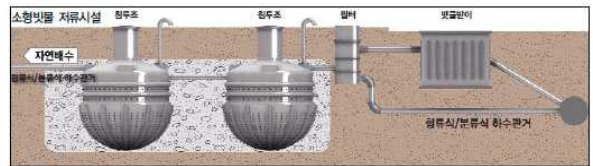
## 빗물관리(이용, 저류, 침투)시설 적용 활동

빗물관리(이용, 저류, 침투)시설은 시,군의 빗물 관리(이용, 저류, 침투)조례에 의하여 관공서 발주공사 인·허가시 설계 반영 및 민간 부문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시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시로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따라 미래의 물문제를 대비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안과 이에 대한 법적(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09.8.3)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적용사례로는 우선적으로 교육연구시설 및 운동시설에 적용하여 시공하고 있다한다.

## 건축설계 활동



나주국민체육센터 및 웨이브트레이닝센터, 2면, 현상공모 당선작(08년) 중발급설계 용역, 인테리어 설계 등 건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빗물처리 개념도

## '내일을 향하여'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특별제작된 스크린 브라인드가 걸려져 있다. '내일을 향하여' 라는 제목하에 세세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누구나 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시선이 머무는 곳, 이 사무실을 가장 많이 들어설 정 건축사에게 늘상 보여질 곳, 아마도 그는 본인의 의지를 다잡기 위해 그것을 설치했음지도 모르겠다. 자칫, 안일해 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사회에서 그는 절대로 녹슬지 않는 강철 또는 이끼까지 않는 돌과 같은 느낌이다. 늘상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준비된 그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취재: 신영은 건축사 기자 (archsye@naver.com)

## 황토의 모든 것

# 남강황토세라믹이 드립니다.

### 황토 생활공간

- 황토의 원적외선
- 풍부한 미네랄 흡수
-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 한방병원, 산후조리원
- 단식원, 기도원
- 레스토랑, 카페
- 유치원, 학원
- 전원주택 등

**남강황토세라믹**  
NK.Ceramic

본사: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677-7  
TEL: (061)374-9100  
FAX: (061)374-7154  
홈페이지: www.nkhwangto.com



정읍시 부전동 1009번지 일원에 들어설 '정읍박물관' 건립 설계경기공모결과 (주)그림 포에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선정됐다. 당선안은 지상2층의 연면적 12,298.5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자연을 담은 외피, 자연을 담아내는 창, 자연을 담은 그릇으로써 정읍이 담고있는 색, 빛깔이 정읍의 문화, 역사, 전통과 함께 어울어져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정읍박물관 건립 설계공모

**井流** 문화의 숲으로 흐른다



**당선작**

(주)그림 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009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9,862.00㎡
- 지역지구 : 보존관리지역,광장문화시설
- 도로현황 : 12M도로,20M도로(13번 국도)
- 연 면 적 : 12,298.51㎡
- 건축면적 : 5,664.36㎡
- 건 폐 율 : 3.16%
- 용 적 율 : 5.31%
- 층 수 : 지하2층,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 주요마감 : 친환경합성목재, 알루미늄쉬트, 라인징크, 압출성형시멘트판넬



▲ 1층 평면도



▲ 정면도



▲ 전경

중외공원내에 들어설 '광주시립박물관' 증축 설계경기공모결과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선정됐다. 당선안은 지하2층,지상2층의 연면적 7,219.1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기존 시민민속박물관 시설과 연계된 동선계획으로 과거에서 현대로 역사의 흐름을 표출하고 새로운 가능성인 빛의 공간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스케일있는 품도적 경관구도에서 풍영의 화유구도를 통해 역사문화와 전통정원, 풍도를 몸으로 체험하는 단지공간조성을 통해 단순히 옛것의 보존을 위한 박물관이 아닌 시간의 연결과 흐름이라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시립박물관 증축 설계공모

**빛** 모음터  
세곳의 빛우물에 이르는 두개의 빛길을 따라 희망의 울림을 엿다



**당선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004-4번지
- 대지면적 : 37,372㎡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 도로현황 : 남측 27m도로
- 연 면 적 : 7,219.16㎡
- 건축면적 : 2,913.71㎡
- 건 폐 율 : 7.99%
- 용 적 율 : 9.22%
- 층 수 : 지하2층,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투명+불투명복층유리, 산화피막쉬트, 화강석



▲ 1층 평면도



▲ 우측면도



▲ 중앙 전시홀 전경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축상을 시상했다. 본 지면에서는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건축인들의 자기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금상 세계 광엑스포 주제전시관
- 은상 4D 고사옹놀이 영상체험관, 문화여성병원
- 동상 북구청소년수련관 별관, 라마다프라자 호텔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 북구청소년수련관 별관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2동 1009-1번지
- 용 도 : 생활권수련시설
- 연 면 적 : 732.14㎡
- 건축면적 : 543.83㎡
- 규 모 : 지상2층
- 설 계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
- 자료제공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수련관 별관 조감

북구청소년수련관 별관은 문흥동 문화공원 내에 위치한다. 이 곳은 많은 북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이기도 하다.

기존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나 문화시설의 부족함으로 증축을 고려하였다. 보통은 공원 내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녹지가 줄어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적극적으로 지형차를 활용하여 1층에는 피로티로 OPEN SPACE 확보와 옥상은 녹화 및 원할한 진입으로 공원의 녹지를 자연스럽게 건물로 연장(Green-Network)시키는 안을 구상하였다.



옥상공원장 진입구 전경

### 라마다프라자 호텔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238-3
- 용 도 : 숙박시설
- 연 면 적 : 14,772.02㎡
- 건축면적 : 842.20㎡
- 규 모 : 지하3층, 지상16층
- 설 계 : (주)다원그룹 건축사사무소  
김영인 건축사
- 자료제공 : (주)다원그룹 건축사사무소



주출입구전경



호텔야경

한때는 군부대였던 곳... 광주의 많은 아픔을 통하여 회자되고 알려진 곳...  
지금은 광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변모중인 곳...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은 국내여러곳의 호텔을 운영중인 세계적인 호텔체인인 라마다프라자 호텔중의 한곳이다. 이 호텔은 건축적인 해안과 안목을 가진 건축주와 건축가의 개념과 의지.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1000㎡의 제한적인 대지에 특급호텔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적절하게 모으고 분리하는 작업은 많은 아이디어와 고민들을 요구했다. 호텔의 주요기능인 유니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듈과 배치 레이아웃을 구성하며 내부와 외부가 개념적으로 통하는 디자인을 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혼란스러운 가로에서 따뜻한 노란색 석재와 차가운 커튼월이 조화를 이룬 이 건물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건축물로 남아있기를 기대해 본다.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 용 도 : 문화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아파트)
- 연 면 적 : 10,191㎡
- 건축면적 : 2,70㎡
- 규 모 : 지하1층, 지상12층
- 설 계 : 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 자료제공 : 발해 건축사사무소



계획투시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단지에 위치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광주에 방문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들의 원활한 연구와 휴식,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광주테크노파크 부지에 포함된 본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과의 연결, 내·외부 공간 연결, 새로운 질서의 부여,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자연, 도시를 연결하여 기존의 'CONTEXT'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전경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5년제 건축학과를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역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창조의 중심 · 지역의 희망 · 미래의 리더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넓고 깊고 멀리 보는 힘을 기릅니다"

### 지역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우리나라 7번째로 창설되어 '인간의 삶에 대한 디자인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남도 건축역사의 산실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의 역사와 전통은 동문들의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울대 김문환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교육계, 정·관계, 국책연구소, 공기업, 대형건설회사, 건축설계사무소, 전문건설업체 등 전국 각지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또한 해마다 건축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선·후배 간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끈끈한 동문애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2000년 대학교육협의회평가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된 바 있다.

2002년에는 건축학부로 확대하여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으로 세분화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건축교육분야의 국제적 인종요구에 부응하여 전문 직능분야의 국제인증교육체계를 완비하여 국제화 및 지식정보화 사회를 리드해 나갈 인재양성에 만반의 체비를 갖추고 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해외 우수 대학들에서 연구 및 디자인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한편, 건축학부의 교육프로그램 선진화를 위해 세계 우수대학들과의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건축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건축흐름 및 현장감 넘치는 건축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강화된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건축무대를 리드해 갈 건축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메트로폴리탄 대학 다니엘 교수 초청강연회



건축학 전공 2009 건축전

###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 건축학전공

건축학전공의 3대 교육목표는 전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창조 건축가, 국제실무형 전문건축가,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건축을 실천하는 설계디자이너 양성이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2008년 캔버라 협정(Canberra Accord)에 의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 실시한 인증심사평가에서 건축학프로그램 국제 예비인증을 받아 건축교육의 국제화를 실천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정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 공모전 및 전시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디자인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 건축공모전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재학생들의 디자인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건축학전공은 2007년부터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및 광주광역시 공공동주관하는 20년 장기 프로젝트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장애없는 건물'로 리모델링한 데 이어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앞 버스정류장을 '무장애 버스정류장'으로 개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건설에 협력하고 있다.

보다 전문화되고, 실천적 교육을 바탕으로 실력을 겸비한 건축학전공 동문들은 최근 국내 유수의 건축설계 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90%에 육박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졸업 후 해외유학의 길에 오른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 영국의 리처드 로저스 사무실에 진출하는 등 전문화된 건축학교육의 결과 동문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 삶의 질을 실현하는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은 2008년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에 의한 ABEEK인증 건축공학프로그램 심사평가에서 지역최초로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는 건축공학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물 생산의 전과정을 이해하고 공학기술 관리자로서의 문제 해결 및 통합사과 능력을 지닌 국제적 건축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음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EEK인증 건축공학프로그램은 건축구조/재료, 건축시공/관리, 건축환경/설비 등을 세부트랙으로 하여 심화된 교육과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학설계프로그램은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2007~2009), 건축구조경진대회(2008), 건축시공기술대전(2008), 콘크리트기술경진대회(2009) 및 창의적 종합설계 산학협력EXPO(2008~2009) 등에서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다. 2009년 제50회 건축전 건축공학 전공 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는 4학년생들이 32작품(총 67명)의 졸업작품 포스터발표를 진행하여 건축공학 축제의 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산학협력교육체계를 통하여 지역전문



건축학부 건설산업 탐방(2007)

업체로의 취업수월성이 확보되어 졸업생 75% 이상이 건설분야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10명중 1명은 등록금의 반액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 받고 있다. 최근의 친환경 고성능화 및 고기술화(Hi-Tech), 초고층화/대형화 되어가는 건설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안전과의 공생을 위한 녹색-지속가능 건축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장기비전 아래에 Green Hi-tech Building Construction사업단 발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수, 학생, 동문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고수준의 건축공학전공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주임 : 임민택 교수 (mtim@chosun.ac.kr)  
건축공학전공 주임 : 최재현 교수 (jh\_choi@chosun.ac.kr)  
(건축학부 사무실 : 062-230-7136)



건축공학설계 최종발표회(2009)



국제 심포지움 개최(2009)



초청강연회



한국건축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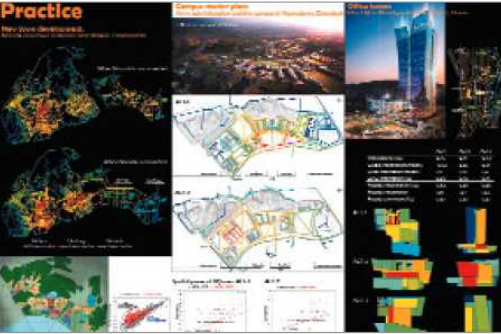
## 미시건대학 건축전시회개최

### - 조선대학교 장동국교수, Space Explorers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장동국교수(cdass@chosun.ac.kr)가 미국 미시건건축대학 부설 갤러리2106(TCAUP Gallery2106)에서 한국인으로써는 처음으로 'Space Explorers'라는 주제로 건축 전시회를 지난 2010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였다. 최근 미시건건축대학에 교환교수로서 체류한 후 귀국한 장동국교수는 미시건건축대학과 미시건주 엔아버시에 위치한 남빌딩메니지먼트 회사의 후원을 받으며 지난 십여년간 진행한 교육, 연구, 실무경험을 총정리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시회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교육관련 프로젝트는 지난 2년 동안 건축학전공 4학년들과 함께 진행한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로서 2008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앞에



설치한 무장애버스정류장, 2007년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연구관련 프로젝트는 공간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rchiSpacer', 'MoonSpacer' 그리고 범죄발생예측프로그램(CPP)과 SSCI저널에 발표된 연구논문이 주된 내용이다. 셋째, 실무프로젝트는 남양신도시, 육군종합행정학교, 기보사옥, 마포종합사회복지관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방문한 미국건축대학 및 건축과 도시에 관한 기행을 정리하고 에필로그로서 마무리하였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미술기 학생기자 (homin1004@nate.com)

### 학생공모전 소식

## '승례문 가설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문화재청은 승례문 가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디자인 분야 대학(원)생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승례문 복구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애호의식을 확대하고자 '승례문 가설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주최 및 주관 : 문화재청
- 디자인 대상 : 승례문 가설시설물 전체(가설넛집과 울타리)
- 응모 자격 : 전국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인 또는 단체(팀)
- 공모 일정
  - 접수 일 : 2010년 3월 23일(화) ~ 3월 25일(목) (3일간)
  - 심사 : 3월 29일(월) ~ 4월 2일(금)
  - 결과발표 : 4월 7일(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 조선대학교 '이청웅교수' 정년퇴임

지난 2월 26일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건축학부 이청웅 교수의 퇴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퇴임식은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빈 및 가족소개, 인사말과 약력소개, 축사와 축하연주, 송공사, 논문집 봉정, 꽃다발 및 선물 증정, 퇴임사, 케익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공과대학 김의식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은사님이기도 한 이청웅 교수님이 광주시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그리고 조선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청웅 교수의 정년퇴임을 아쉬워했다.

이청웅 교수는 퇴임사에서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동고동락한 동료교수와 지인, 특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정년퇴임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청웅 교수는 약관의 나이였던 1970년에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시작해 40여년간 약 1천여명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튜터링 제도

### "새로운 학기도 튜터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매년 3월, 이제 막 1학년이 된 신입생들은 그저 막막하다. 수능이 끝나고 성적이 발표된 이후 대학입시원서 제출, 합격발표, 학교 등록, 신입생 OT 등등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데다가 수강신청과 학점이라는 말조차도 아직은 생소할 시기이다. 그래서 주변에 먼저 대학을 다닌 형제나 지인의 조언이 없다면 대학생활 시작부터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선배들이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서서 튜터를 신청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튜터링 제도의 시작이다.

튜터링은 각 학과(부) 혹은 전공의 고학년 학생이 튜터로 활동하여 동일 학과(부) 신입생 5명을 튜터로 받아, 튜터들을 대상으로 학업, 학교생활, 진로 등을 특별지도하여 신입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학습 공동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각 학과(부)에는 2~3명의 선배들이 튜터로 배정되어 있고, 운영 방법은 튜터들이 본인이 속한 팀의 튜터를 중심으로 매주 1회 정도의 모임을 갖고면서 학업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상담, 식사 및 스터디 등)을 받는 것이다.

2009년 2학기에 튜터를 맡았던 주연홍 학우(건축학 전공 4학년)는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도 해결하고 함께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재미있어요."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튜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튜터였던 학우들(윤설 외 1명)도 "선배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려주셔서 좋았고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며 함께 웃었다.

2010년 1학기 전남대 건축학부에는 2명의 튜터가 있고 현재 튜터를 신청받고 있는 상태로 한 해 동안의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굳이 튜터링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튜터가 될 만큼 맛있는 선배가 있다면 신입생들이여,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j@naver.com)

# 에이알건설

## ALPAN 광주전남지사

조달등록업체

- 불연, 난연 친환경 판넬
- 실내외장재 판넬 및 화장실 칸막이

외장재

벽돌조    계남중1    계남중학교    컷팅형

내장재

영주여자중학교(목무니)    송도경제자유구역형사    진해남중학교

도문외장판넬

천장형 (EFK-AL-HC100)    문단형 (EFK-AL-HC600)    노물당형 (EFK-AL-HC500)    스테인레스 (EFK-AL-NF700)

도문내장판넬

안남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代表 박 경 준

TEL. 061-363-0025  
H·P. 010-2926-0025



# 로저 베일리(Roger Bayley) 강연회

## 제로에너지 -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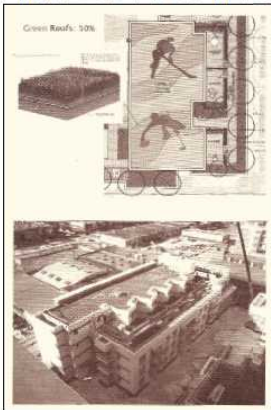
밴쿠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난 2월 26일,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Athletes' Village - Millennium Water) 제로에너지소비 주택 16,000세대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관장한 로저 베일리(Roger Bayley)의 초청 강연회가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Roger Bayley는 물의 상정성, 존재성,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파도 모양 등 물의 이미지를 건물과 부대시설 디자인에 반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을 일명 '밀레니엄 워터'라고 한다. 그리고 배출가스 제로, 에너지소비 제로의 친환경 건축을 추구했다.

에너지 절약 방법인 'NET-ZERO(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가 같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는 1년을 주기로 에너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수도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방사형 천정에 냉온수를 통과시켜 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였고, 회색 디자인으로 에너지 부하량을 감소시켰으며,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빈도를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통합시스템의 방안으로 손가락 모양의 손톱에 에너지 사용량을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밴쿠버 시민 모두가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태양열과 풍력 이용 및 단열재·마감재·조명 등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또 옥상 파라펫 지붕을 돌출시켜 건물내벽의 내구성을 높였고, 옥상에 조경으로 올림픽 경기장 모양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그린빌딩을 구현하였으며, 동물이 서식하는 섬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였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인간적인 환경과 동네같은 친밀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면서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친환경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캐나다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박신남 건축사 기자 (psn0188@hanmail.net)



# 2010년 건축문화사업 닷 올러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한옥지원사업」 공모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한옥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 2월 16일부터 시작하였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녹색건축, 수변공간, 기반시설 및 기타 등 세 분야에 초점을 두어 2010.2.16부터 3.15까지 4주 동안 지자체로부터 「디자인 및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한옥지원사업」은 한옥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한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을 현대에 맞게 되살리고 재창조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① 지자체가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한옥건축사업, ② 건축물의 일부에 한옥의 디자인요소가 접목된 한옥디자인보급 사업을 대상으로, 한옥 홍보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

국토해양부는 지진 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체크포인트의 주요내용은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전북건축사회 정책 간담회 가져

## 김완주 전북도지사 및 김용현 과장과...

지난 2월 3일(수)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과 임직원 20여명이, 전라북도 도지사 접견실과 9층 소회의실에서 김완주 전북도지사 및 김용현 전북도청 디자인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엽 회장은 '건축설계용역 입찰제도 개선(전기, 소방 등 분리발주 요망)'과 '건축사 행정처분 실태 개선(행위

자 처벌의 필요성 강조), '서부 신시가지 택지지구내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 개정 요망',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 등 지역활성화 대책 강구 요망', '경미한 개발행위 인허가 시 신청 서류 및 도면 작성자 자격 규제 완화 요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전북건축사회 회장상 수여

## ‘전주비전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2월 4일(목) 전주비전대학 학위수여식에서, 건축학과 강미라 졸업생에게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고급 만년필을 전달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상」은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에 나가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고자, 전라북도내 건축학과 재학생 성적 우수자와 졸업작품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 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은 5월 16일

## 건축사자예비시험 / 건축사자격특별시험 공고

이번 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시험 시행공고가 확정됐다. 시험일자는 5월 16일(일)이며 시험시간 및 장소는 4월 21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하며, 2010년 3월 15일부터 3월 24일(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으로 문의 바란다.



표 / 지 / 실 / 명

몬드리안 Mondrian, Piet

데스타일이라고 알려진 추상미술

운동의 대표적인 화가 그의 작품은

20세기 미술과 건축 및 그래픽 디

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Mondrian을 motive화 하여...

건축문화 *사*랑

###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 *사*랑

###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영환

김상현,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 062)521-0025



### 전라남도 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 3월 16일(화), 광주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전라남도 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가 2010년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번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전라남도 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2009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 전라북도 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 3월 19일(금),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전라북도 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가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번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는 2009년도 수지결산(안)심의 승인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 광주시, 각종 대형문화관 개관



문화수도 광주시의 핵심기반시설이 될 대형문화관이 속속 개관되어 광주시 문화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 개관한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옛 구동체육관 자리에 총 505억 원을 들여 부지 5,448㎡, 연면적 14,049㎡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24일 개관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옛 광주세무서 자리에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부지 1,598㎡, 연면적 6,289㎡의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또한 정월대보름에 맞춰 28일 남구 칠석동에 개관한 고싸움놀이체험관은 총 사업비 7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부지 2만5,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영상체험관, 민속놀이 체험마당,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춘 고싸움테마파크로 완공되었다.

### 나주시, 도래전통한옥마을 조성

전남 나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7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16만㎡에 나주 도래전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옥 민박 15동과 주차장, 방문객 센터 등이 조성됐으며 최근 다목적체험관 상량식을 가졌다. 올해에는 40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전기·통신 지중화, 다목적체험관 건립, 연못 복원, 빨래터 조성, 물길 정비, 황토 포장, 경관 가

로등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폐교를 매입하여 전통 및 농경문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향후 건립될 체험전시관에는 전국 향토 음식문화관, 농경문화전시체험관, 전통혼례와 예절 및 다도교육 등을 직접 해보는 전통문화체험관, 역사 인물관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완도군, 건강테마촌/ 다목적체육센터 조성



완도 노화 건강테마촌 조감도

전남 완도군은 올해 4월 중,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전북전시관과 체험관, 워터랜드, 찜질방 등을 갖춘 건강테마촌 조성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테마촌 조성사업은 테마성을 개발

한다는 전략아래 보길도와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민체육센터기금 33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착수할 계획이다. 체육센터는 고금면 덕암리에 전체면적 1,87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고금을 비롯해 약산, 신지 등 인근 섬 지역 동호인들의 체육활동과 각종 행사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광주 건축계 동정

\*재개업

- 02월 22일 김기영 건축사 (G.Y 건축사사무소)

\*부고

- 윤석호 건축사 (지에이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병부상 - 02월 18일 (목)  
- 진수성 건축사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02월 25일 (목)  
- 이현조 건축사 ((주)휴먼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03월 07일 (일)

### 전북 건축계 동정

\*변경

- 최상철 건축사 (삼호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38)  
- 문경재 건축사 ((주)진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72-3)  
- 이명엽 건축사 (이루다건축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2)

###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01월 22일 승민 건축사 (세움 건축사사무소 / 목포시 옥암동)

\*전입

- 02월 01일 최행욱 건축사 (서울터 건축사사무소/나주시 송월동)

\*변경

- 현수호 건축사 (흥의 건축사사무소 /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 김용준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사야 / 순천시 조례동)

### 광주광역시청 건축관련 인사발령

- |     |                                   |     |                   |
|-----|-----------------------------------|-----|-------------------|
| 이동우 | 노인복지과 → 광산구                       | 신규철 | 도시디자인과 → 건축주택과    |
| 박종호 | 산업진흥과 → 종합건설본부 설비2과장              | 정대경 | 도시디자인과 → 체육지원과    |
| 강 권 | 계약심사과 → 방재관리과                     | 유금배 | 건축주택과 → 계약심사과     |
| 김성호 | 산업진흥과 → 건축주택과                     | 최성룡 | 종합건설본부 → 건축주택과    |
| 이규남 | 방재관리과 → 노인복지과                     | 윤재권 | 시립미술관 → 도시디자인과    |
| 최남진 | 종합건설본부건축과장 → 방재관리과                | 최원석 | 광주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
| 박 산 | 광주광역시 사무관 → 종합건설본부 건축과장           | 박기병 | 종합건설본부 → 빛고을시민문화관 |
| 윤재철 | 광역스포츠추진기획단 →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파견 | 김형완 | 문화예술관 → 종합건설본부    |
|     |                                   | 서정수 | 종합건설본부 → 시민근로복지관  |

### 전남도청 건축관련 인사발령

- |     |                          |     |                            |
|-----|--------------------------|-----|----------------------------|
| 윤진보 | F1대회 준비기획단장 → 공무원 교육원장   | 박봉순 | 스포츠산업과 레저산업담당 → F1대회지원본부   |
| 신명수 |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 행복마을과장     | 박형수 | 여수박람회지원관실 지원담당 → 공무원교육원    |
| 이덕부 | F1대회 지원담당관실 → 여수박람회 지원관실 | 김상규 | 공무원교육원 관리담당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
|     |                          | 정진환 | 행복마을과 → 사무관 승진             |

### 전남 동호회 소식



골프 동호회

축구 동호회

2006년 전국건축사 연합회창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건축사축구동호회의 뜨거운 축구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고자 순천·여수·목포지역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007년 9월 8일 창단하여 당일 강진 공설운동장에서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전북건축사축구동호회 및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첫 친선경기를 가졌다. 비록 창단 초기에는 선수구성 및 재정 등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

려움이 있었으나 집행부 이하 모든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남건축사 축구동호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순천·여수·목포지역이 200km에 걸쳐있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단 첫째 수원대회를 시작으로 2009년 남해대회까지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축구, 인건비가 넘치는 축구동호회로 전라남도 건축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선중 건축사 (전남 축구동호회 회장)



수필

# 포쇄(曝曬)

범영 논술교사

옛 선인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세시풍속 중 '포쇄'라는 것이 있다.

포쇄(曝曬)는 말 그대로 '책에 바람을 쐬인다'는 것이다. 선비는 책을 말리고 농부는 곡식을 말리고 부녀자는 옷을 말렸다고 한다.

특히 책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썩거나 별레가 생기기 쉬웠는데 녹녹한 종이를 말리는 포쇄를 통해 우리 선인들의 책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나라의 사안이 실린 실록 등 중요한 책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그 덕에 우리는 지금까지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책을 볼 수도 있다.

가끔 나는 포쇄라는 이름 뒤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본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고향 산천에 파묻혀 후학(後學)에 힘쓴 선비들의 모습으로 짐작할지 지난 후 닳아빠진 책들을 제자들과 함께 말리는 장면이다. 햇볕을 따라 여기저기 책을 펼치며 이야기하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chehav>

는 것 자체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충분하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보니 습기가 가득 찼다고 책을 말리는 일도 없을 테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다보니 스승과 제자가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다.

그 옛날 책을 말리며 스승과 제자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또한 남아있는 책을 말리는 스승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정한 가르침은 백년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다. 책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옛 선인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내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 시작의 기회

송다나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다시 시작이다!

시작은 늘 기대감으로 충만 되어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적이나 장학금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 학기동안 예측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건축인으로서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인간으로서 얼마나 성숙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나처럼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라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느끼는지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축뿐 만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까지도 다듬어 진다는 것을 공감 할 것이다. 마치 험난한 산을 또 하나 넘은 것처럼 해냈다는 성취감과 다시 도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맛 본 사람이라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꿈을 향해 한걸음을 또 내딛는 이즈음에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반드시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막연히 최선을 다해서의 성취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지향점이 없이 갈팡질팡한다면, 순간적인 판단으로 어떤 일에 뛰어들면, 단지 열심히 살았다는 위안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계가 시작되면 다른 공부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설계 또는 과제물을 핑계로 하루하루를 작업실에 처박혀 보내기 십상이다. 합리적인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작품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아니다. 흔히 하는 말로 먹고사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적인 실천계획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건축은 여러 가지의 학문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라 배웠다. 그렇다면 미적인 안목, 인문학적 식견, 수학적 사고 등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야의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가. 또 한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관계형성이나 소통 등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야 할 것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 특히, 안다는 것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공간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을 공부하는 묘미이다. 그런데 건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생각에는 대부분 각각각색의 삶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건축을 공부하는 의미도 퇴색되고 말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졌던 내 삶의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학기 중에 실천해야할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느꼈다. 이번 학기를 맞는 나의 목표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 거창하지도 않다.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한옥이 돌아왔다' 등 책 7권을 통독하는 것, 그리고 여름방학 전까지 토익 700점, 올해가 가기 전까지 800점 정도가 전부다. 책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과 영어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다.

건축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박하지만 남다르게 한 학기를 시작하고 싶다. 이 시작을 소통의 기회로 삼기위해.

# 이외수의 생존법 『하악하악』

전태련이 그리고, 이외수가 쓰다. 해냄출판사/2008 박주연 간호사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된『여자도 여자를 모른다』에 이은 두 번째 세밀화 에세이로, '이외수플레이톡(www.playtalk.net/oisoo)' 홈페이지에 매일 1~10회 썬 올린 원고 중에서 네티즌의 뜨거운 댓글로 인선받은 수작들만을 엄선해 수록

려진 우리 토종민물고기 삽화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짧은 우화들을 엮어놓은 듯한 (하악하악)에는 우스갯소리와 풍자 그리고 교훈이 어우러져 있어서 때로는 기분전환이 되기도 하고 씩씩한 미소를 짓기도 하며 잔잔한 깨달음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하악하악'은 단순히 거친 숨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가슴 벅찬 순간으로 다가온다. 마치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쏟아내는 숨소리처럼 말이다. 그 중에서 유난히 가슴에 와 닿는 글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고자 한다.

“나는 유년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 장난감도 자연 속에서 재료를 구해서 직접 만들어야 했고, 간식도 자연 속에서 채취해서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시의 아이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한다. 창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부모를 돈의 공급처로만 인식하게 된다. 자녀 교육을 염려해서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부모들을 만나면 말해 주고 싶다. 자식을 위해 이사 자주한다고 아무나 맹자 암마 되는 거 아닙니다요.”

“이외수가 어떤 도인에게 물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그 도인이 대답했다. 하늘을 나는 일은 나비나 새들한테 맡겨두시게.”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진실을 못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진실을 보고도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죄인 뿐이다.”

하였다고 하며, 우리 토종 민물고기 세밀화 65종은 화가 정태련이 3년에 걸쳐 전국의 산하를 발로 뛰며 그려낸 것이라고 한다. '영혼의 연금술사' 이외수와 '생명의 전령사' 정태련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꿈꾸는 삶의 가치를 담아낸 것이다.

이 책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가르침을 주신 어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읽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하악하악』이라는 제목도 특이했지만, 1~3줄이거나 길어야 6~8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과 삽화로 구성된 것이 눈에 띄었다. 쉽게 말하면 유머처럼 한 쪽에 짧은 글 1~2개와 삽화가 어우러져 있는 책으로 저자가 이외수 선생님이라는 점만 빼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며 보았던 동화책과 흡사했다. 그래서 처음엔 아주 짧은 시간에 쉽사리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다보니 책장을 쉽게 넘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록 짧은 글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글로 채워져 있었고, 세밀하게 그

건축가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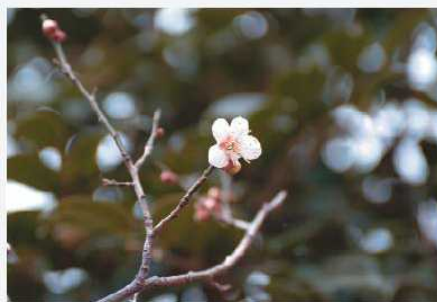


초가집 대문

초가집 대문에 햇볕이 온화하다. 늙으신 어머니 노래와 손자국이 묻어있다.

그림: 양동훈 건축사

Photo



갓 피어나는 매화

“꽃의 계절이 돌아왔다. 3월이면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봄꽃들이 우리를 달뜨게 한다. 수줍게 피어나는 봄꽃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기운을 얻는다...”

(2008년 3월 9일 곡색야생화단지 촬영: 정태호 건축사기자)





해남 파인비치 -그늘막



서울 오류고등학교-외장재



광주 첨단수입차매장-외장재



경남 통영 예저터널-지붕재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붕재



강원 평창 알펜시아-지붕재2



전남 순천 상삼출장소-지붕재



전남 여수 세관-외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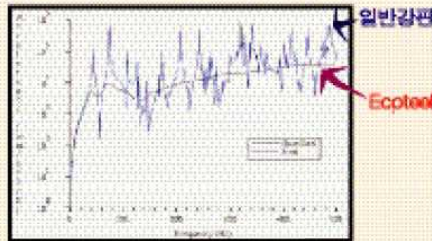
모티스, 티센크루프 - Elevator

모재 : STS, Cu, Brass, GI  
 첨단성수지  
 부재 : GI, EGI, GL, GI



# ecoteel

for your space 에코틸



진동테스트

Spec	열확산율 wt/ft	열전도율 W/mK
일반 STS 0.8	4.837	14.262
STS0.2+GI0.6	1.449	4.980
일반 Cu 0.7	45.303	150.514
Cu0.1 + GI0.6	0.936	2.901
일반 CR 1.6	15.449	52.806
CR0.8+CR0.8	1.335	4.936



I Smile  
**해원 엠에스씨**주  
<http://www.hwmsc.co.kr>

본사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번지 T(061)759-2500  
 영업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1232-8번지 T(062)956-287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8층 T(02)413-2903



우리의 대표 브랜드 - 삼성

무등의 비로와  
12로  
세계기록!



알고 계셨나요?

##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와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자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사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비율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 우리지역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전문점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	영광지역 영광삼성점 062)385-8900